

동북아 금융거점도시 서울의 과제

○ 국제금융거점의 중요성

- 동북아가 북미, EU와 함께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함에 따라 동북아 국가들은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음

. 세계 총생산량 중 동북아지역의 비중	
: 1999년 20.0%	-> 2020년 30.0%
. 세계 물동량 중 동북아지역의 비중	
: 1998년 27.0%	-> 2006년 30.1%

- 동북아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새로 출범하는 신정부도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했으며, 서울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토론회(2003.2.6)에서 동북아 금융중심지 육성 계획을 보고한 바 있음
- 경제중심지는 인접국가 및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및 재화를 제공하는 곳인 점에서 금융 중심지의 역할이 중요하며, 세계적으로 경제허브의 역할을 하는 곳(런던, 뉴욕, 홍콩, 싱가포르, 암스테르담)도 금융 중심지라는 공통적 특성을 보임
-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국제금융거점(혹은 센터)이 담당할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금융 및 경제중심지로서 서울의 위상정립이 중요함

○ 국제금융거점의 개념 및 편익, 그리고 유형

- 국제금융의 거점은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 및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금융환경 및 투자인센티브 등을 제

공하는 장소를 지칭함

- 국제금융거점은 다양한 편익을 창출할 수 있음. 첫째, 첨단금융기법과 노하우를 접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둘째,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증대된 투자재원이 경제성장을 유발함. 셋째, 취업구조가 부가가치가 높은 형태로 변화되고, 넷째, 투자의 세계적 다변화를 통해 유동성 위기의 가능성을 줄임. 다섯째는 금융부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재무, 회계, 경영, 법률 서비스 뿐 아니라 오락, 문화, 교육, 관광 등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

- . 런던: 타산업에 비해 최소 3-4배 높은 금융산업의 일자리 100만개 이상 제공
- . 싱가포르: 총취업 인구의 7%인 금융산업 종사자가 국가세수의 14%를 부담

- 국제금융거점에는 ① 런던, 뉴욕, 동경의 글로벌 국제금융센터(global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② 싱가포르, 홍콩 등의 지역 국제금융센터(regional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③ 더블린, 룩셈부르크, 몬트리얼 등의 특화 국제금융센터(niche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④ 케이만군도, 버뮤다 등의 역외기장센터(off-shore booking center)가 있음
- 국제금융거점은 첫째, 국내외 금융거래에 대한 정부규제나 감독에서 차이가 없고, 둘째는 금융거래에 대한 세금이 적고, 셋째 금융전문가들이 풍부하며, 넷째, 생활여건이 양호한 공통점이 있음

[표] 국제금융센터의 종류와 기능

구 분	도시	역할
글로벌 국제금융센터	런던, 뉴욕, (도쿄)	전세계를 대상으로 모든 종류의 금융자산 거래
지역 국제금융센터	싱가포르, 홍콩, (파리, 프랑크푸르트)	해당 권역 내의 금융거래
특화 국제금융센터	더블린, 룩셈부르크, 몬트리얼, 아일랜드	소수 금융상품에 특화 금융거래
역외기장센터	케이먼군도, 버뮤다, 라부안	실질 자본거래 없는 기장처리

- 국제금융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동아시아 도시동향 및 이들의 경쟁력
 - 동아시아 대도시들은 금융거점 도시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그림] 동아시아의 국제금융센터

- 상하이는 푸동경제특구내에 육가취 지역을 금융, 무역지구로 조성 중

이며, 이곳에 289개 초고층 빌딩, 20여개의 다국적 금융기관, 40여개의 다국적기업의 지역 본부가 입주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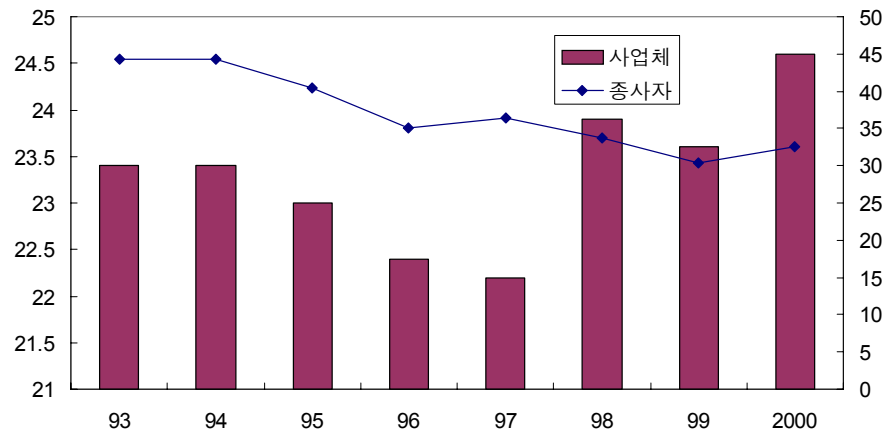
- 홍콩은 1997년 홍콩 특별추진팀이 마련한 비즈니스 중심화 전략에 따라 국제금융 기능을 유치하기 위해 빅토리아항과 Central 지역에 약 13만평 규모의 국제금융센터(IFC)를 건설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1998년 경제개발청에서 지식기반산업 중심지화 계획(Industry 21)을 발표하고, Concept Plan 2001에 따라 Central 지역에 금융과 서비스부문 집중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동아시아 경쟁도시에 비해, 금융거점 도시로서의 서울은 경쟁력이 큼

- 동경은 글로벌 금융센터이나 자국내 거래에 치중하는 형편이며,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외국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철수하는 형편임
- 홍콩은 중국반환과 상하이 금융도시 육성에 따라 위상이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동남아에 편중되어 있음
- 싱가포르는 국내경제기반이 협소하기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많고, 동남아에 근접하여 동북아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여건
- 상하이는 경제력과 지정학적 위치에서는 유리하나, 계획경제로 인해 금융시장이나 외국인 투자 등에서 불안요인이 상존함

○ 국제금융거점으로서 서울의 여건과 가능성

- 국제 금융중심지는 경제수도에 형성되는 경향을 보이며(서울은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 사업체의 24.5%, 종사자의 32.5%를 차지), 서울 중에서도 도심에 금융산업이 집적하고 있음



[그림] 전국 금융산업에서 서울시 금융산업의 비중

- 대외적으로는 첫째, 세계화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가 한국에게는 호기가 되고 있는데, 런던, 뉴욕과 같은 국제적 금융중심지는 새로운 파트너를 필요로 하고 있음. 이는 서울이 세계금융네트워크의 하나의 축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둘째, 동북아지역의 경제규모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국제금융중심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함
- 대내적으로는 첫째, 한국경제가 2002년 세계 13위며, 2010에는 세계 7위로 성장할 것이며 이것이 금융거점도시의 기반이 될 것임
- 둘째, 2시간 30분의 비행거리 내에 100만이 넘는 도시가 무려 43개(인구 7억의 배후시장)나 포진하는 동북아 경제권의 심장부에 위치함
- 셋째, 한국은 막대한 금융풀을 형성하고 있음. 매킨지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금융자산규모는 1조 6000억 달러로 일본(23조달러)에는 뒤지지만, 우리보다보다 경제규모가 큰 중국(1조 7000억달러)과 비슷함
- 넷째, 지속적인 금융개혁과 금융기관의 대형화로 인해 금융시장의 펀드멘털이 향상되고 있음

○ 국제금융센터 조성을 위한 국가적 대응

- 막강한 경제력, 자국통화의 국제화, 광범위한 네트워크 등이 글로벌 금융센터의 요건임을 고려할 때, 서울을 지역적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함이 합리적 목표이며, 이를 달성키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 첫째,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법률·제도 등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추진함
 - 둘째, 자국의 막강한 경제력이 금융거점도시의 토대임을 감안하여, 국토공간의 전문화된 분업(수도권과 지방, 수도권내 물류·IT·금융)을 통한 광역적 클러스터로 경제력을 확대함
 - 셋째,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및 지속적인 금융시장의 선진·투명화, 노동의 유연성 확대 및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확대함
 - 넷째, 세제개선, 금융 전문인력 양성, 외국언론 매체를 통한 국가 이미지 개선
- 국제금융센터 조성을 위한 서울의 과제
- 첫째, 금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육성함
 - 둘째, 금융기능이 집적해 있는 도심, 여의도, 강남지역을 금융지구로 지정함과 동시에 DMC에 국제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하여 이들의 특성을 살린 금융클러스터를 지원
 - 셋째, 도심에는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하여 금융 및 금융지원관련 산업발전의 핵심기능을 수행케 함
 - 넷째, 국내로의 자본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문화, 여가 등 양질의 생활환경을 개선함
 - 다섯째, 국제금융센터로서 서울의 양호한 제도, 지원, 입지, 생활여건을 세계적으로 홍보함

신창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장

sch@sdi.re.kr

김현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